광주·전남 5년새 한방병원 110%, 요양병원 72%↑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급증

치과병원도 늘어… 인구 고령화 원인

건강보험평가원 광주지원 분석

광주·전남지역의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5년새 전국 평균에 비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의 분석결과, 최근 5년간(2011년 대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과 약국·보건소 등의 요양기관은 5.1%가 증가해 285개소(2011년 5637개 → 2015년 5922개)가 늘었다. 이는 전국평균 증가폭 3.9%(2011년 82,948개소 → 2015년 88,163개소)에 비해 30%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요양기관 중 한방병원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증가분의 71%를 차지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호남지역에 3개 한의과 대학이 위치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변화에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 지난 5년 동안 한방병원이 110% 늘어나 가장 많이 늘었고(2011년 49개소 →2015년 103개소), 요양병원이 72%(2011년 68개소 → 2015년 117개소), 치과병원이 50%(2011년 10개소 → 2015년 15개소) 늘어나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한방병원이 41%, 요양병원 39%, 치과병원 6% 증가한 것에 비하면, 광주·전남지역은 전국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더욱이 한방병원은 5년간 전국에서 76개소(2011년 184개소 → 2015년 260개소)나 늘었는데, 그 중 71%를(54개소) 광주·전남지역이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로는 광주 44개소, 전남 10개소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한방병원(260개소)의 시도별 분포는 광주 32.3%, 경기 15%, 서울 15%, 전북 10%, 전남 7.3% 순으로 나타나, 광주·전남지역이 전국 한방병원의 약40%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지역 시·군·구별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광주지역은 전체 2678개소가 ▲북구 28%(758개소) ▲서구 23%(621개소) ▲광산구 22%(578개소) ▲남구 15%(398개소) ▲동구 12%(323개소)순으로 분포돼 있다. 전남지역은 전체 3244개소의 절반이(1623개소) 5개 시에 집중돼 있으며 ▲여수시 14%(439개소)▲순천시 13%(417개소)▲목포시 12%(398개소) ▲광양시 6%(188개소) ▲나주시 6%(181개소) 등의 순이다.

심평원 배선희 광주지원장은 광주·전남지역에서 한방병원(110%↑)과 요양병원(72%↑)이 5년새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노인인구의 지속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과 관계가 깊은 병원들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 지역 인구고령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드배치 철회 촉구 삭발식 1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 숲에서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삭발식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기록관-中 남경대학살기념관

자원교류·기록물 활성화 협약 체결

국민이 희생된 아픈 역사를 공유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중국 남경대학살기념관'이 정보와 자원교류, 기록물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협약식에는 남경대학살기념관 진준봉 부관장 등이 참여했으며, 남경대학살 기록물 유네스코등재 증서 복제품과 등재 신청 내부자료, 등재 관련 서적 7권 등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했다.

이에 앞서 진 부관장은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남경대학살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의'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남경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에 의해 30만명의 중국인이 살해된 전쟁 범죄로,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벌인 가장 끔찍한 만행으로 꼽히는 비극적인 역사다.

중국은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능가하는 비극의 역사인 대학살을 고발하기 위해 '침화일군남경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을 건립해 사진과 문물, 현장 복원 모형도, 희생자 명단, 유골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한편, 9월21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는 사진전 '난징의 기억, 1937년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이 열린다.

나간채 기록관장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남경과 광주가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공통점을 매개삼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구축함·헬기까지 … 명량대첩축제 역대 최대 규모 개최

출어기 감안 한달 앞당겨 내달 2일

어선 131척 자발적 참여 해전 재현

12회째를 맞는 명량대첩축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어민들의 출어기 등을 감안해 올해 앞당겨 개최되는 축제에는 130척이 넘는 어선과 구축함, 헬기 등이 나설 예정이다.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는 15일 "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2016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 2016 명량대첩축제 최종 실행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공동의장인 이낙연 전남지사, 안경호 해군제3함대 부사령관을 비롯해 채원영 보해양조 대표, 강남경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송기생 현대삼호중공업 부문장, 고경석 해군사관학교 총무공연구부장 등 이사들이 참석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어번기 생계활동 보장을 희망하는 해전 재현 참여 어민들의 지속적 개최 시기 변경 의견을 받아들여 평년에 비해 한 달가량 앞당겨진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에 따라 어민들도 131척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어선을 자발적으로 동원, 박진감 넘치는 해전 재현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제3함대가 이끄는 구축함 7대, 헬기 3대, 립보트 3대가 화려한 해상퍼레이드를 펼치고, 해군·해병 의장대와 군악대도 가세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또 공연은 기존의 전통공연 일색에서 벗어나 세대별로 선호도가 다른 3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광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축제 이튿날인 3일에는 '명량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심포지엄에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강사로 나서 특별강연을 하고, 이순신 장군의 5대손 이봉상 충청병사가 기록한 '이충무공전' 한글본 특별사료 공개 행사도 진행된다. 심포지엄에서 처음 공개되는 '이충무공전' 한글본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순신의 행적과 명량대첩 상황이 한글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이순신 장군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과기원 '호남권 연구안전 클러스터' 선정

광주과학기술원 등 전국 3개 대학이 지역 연구실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연구안전 클러스터'로 지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전국 연구실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안전 클러스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래부가 지정한 클러스터는 충청권·영남권·호남권 클러스터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충남대·영남대가 각 권역 연구실 안전의 거점 역할을 한다.

지난해 8월 미래부는 전국 연구실의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를 지정했다.

현재 본부는 연구실 안전 관련 정책 수립지원부터 법·제도 운영, 안전교육, 현장점검, 사고대응 등 전반적인 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권역별 연구안전 클러스터는 본부와 함께 연구현장 가까이서 연구안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개 클러스터는 앞으로 사고대응, 연구실안전법 현장교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워크숍·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패 수여식 지원 등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도 맡는다.

연구실이 밀집된 수도권에는 이미 수도권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일본에 우리문화재 7만여점 … 조사작업 시급

해외 한국 문화재 중 43% 해당

나고야서 고려 거울걸이 발견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의 미술관에서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급 거울걸이(鏡架)가 발견됐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미술사를 전공한 최응천 동국대 교수는 15일 "아이치현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무라 데이조(木村定三) 컬렉션에서 높이 56.4㎝, 폭 42.1㎝인 고려 거울걸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울걸이는 두 개의 사각 틀을 교차해 접고 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다. 고려 거울걸이는 국립중앙박물관에 3점,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에 각각 1점 등 5점밖에 없는 희귀한 문화유산이다. 그 중 상태가 온전하고 가치가 뛰어난 유물은 2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파악된 일본 소재 우리 문화재는 모두 7만137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에 있는 전체 한국 문화재 중 43%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환수한 한국 문화재는 6550여점에 불과하다. 그 중 약 3300점은 기증받은 것이고, 약 3000점은 협상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문화재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소재가 확인된 일본의 한국 문화재는 3600여 점이 증가했으나, 환수 문화재는 단 76점만 늘었다.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 전문가들은 우선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의 조사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